

대형건물을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하여

대형 건물의 설계를 일정 규모의 대자본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로 하여금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근본 취지는 건축행위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사불란하게 좀더 단축된 생산체제로 해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도모코저 하는 정책으로써 현재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의 생산효율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사는 것을 문명화라고 간단히 정의한다면 문명화를 빨리 시키기 위하여 노동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좀더 적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으로써 똑같은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사회관리 제도의 개발은 그 사회를 “물질적으로 문명화”시키는 목적으로써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문명화 즉 물질적 풍요만 염두에 두어 사회생활 전반에 대하여 오직 능률적인 행위에만 지고의 가치를 두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간이 목표로 하는 물질적 문명화에 도달하는 데에도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숙된 물질적 문명화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문명화 즉 정신문화의 향상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물리적 욕구의 독주는 스스로 물질문명 사회적 병리현상(물질 탐욕으로 인한 각종 범죄, 대기 및 수질의 환경공해 나아가서 소음 및 건축환경의 시각적 공해 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오직 경제적 능률성에만 가치를 두려는 것은 좀더 향상된 정신문화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물질문명적 병리현상에 대한 사전대비가 염두에 두어진 연후가 아니면 맹목적이고 위험한 의지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건축행위에 있어 미 즉, 예술성의 추구는 바로 이 향상된 정신문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물리적 이익(능률성)과 무관하며 물리적 욕구의

독주(과다한 건축공간의 확보 욕구)로부터 오는 시각적 공해에 의견상 절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예술행위를 경제적 행위의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고 또한 건축문제를 경제원리로 풀어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 국가가 처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경제적 딜레마조차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그래서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에 임하는 사람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노동으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의 상대적 양적 우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애착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정신 가치적 문화가 노동 현장에 배양된 풍토 속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양한 정신 가치적 문화의 창달이 역으로 노동효율성 향상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관을 획일화하여 한 방향으로만 강조했을 때 스스로 한계와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책이나 가치관도 다원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행위의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사를 대형 건설업체의 고용인으로써 종사케 하는 것은 능률적인 건축을 하고자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언정 예술적 창의를 있는 건축을 하려는 의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정책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에 무관심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의 예술성은 건물의 임대업이나 분양업을 하는 건설업체와는 될 수 있으면 좀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건축가가 설계함으로써 더욱 많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주택업자나 건설업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대중의 인식까지도 건축예술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좀더 많이 이해해 준다면 건축가는 더욱더 독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축작업의 단기적인 작업효율 제고 효과만을 염두에 두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설계작업까지 맡기려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다양한 가치와 여기서 비롯되는 가치관이 사회에서 같이 숨쉬며 여유조차 없이 한곳으로 매진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물질문명 향상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경제건설 지상주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여러 정신문화적 가치들 즉, 도덕성, 철학, 예술정신 등이 사회의 한편에서 대중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시도되지 않는한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명사회적 병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元鍾一
종합건축사사무소
세종